

고슈인

고슈인(御朱印)이란 일본 전국의 사원이나 신사가 발행하는 손으로 쓴 증서입니다. 커다란 주홍색 도장이 찍혀 있고, 그 신사나 절의 이름, 날짜, 그리고 행운의 말이나 기도의 문언 등이 붓으로 적혀 있습니다. 고슈인초(御朱印帳)라고 하는 특별한 소책자에 고슈인을 수집하는 일은 역사적으로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기원의 행위였지만, 오늘날 많은 참배자는 이를 기념품으로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슈인은 순례자에게 참배 기록으로서 주어졌습니다. 이는 순례자가 사경을 해서 이를 사원이나 신사에 봉납했음을 나타냅니다. 불교에서 경전을 베끼는 사경은 행복한 내세를 위해 공덕을 쌓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례자가 경전을 베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사원에 돈을 바치고 자신들을 위한 사경을 부탁했습니다. 이때 고슈인은 돈을 받고 사경을 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경전 봉납은 에도 시대(1603~1867) 후기에는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고슈인 모으기는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현재에도 대부분의 사원과 신사에서 소액의 기부금을 받고 고슈인을 하나 이상 발행하고 있습니다.

엔교지 절에서는 경내의 세 곳(마니텐, 지키도, 가이산도)에서 6 종류의 서로 다른 고슈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마니텐에서 발행하는 고슈인은 '사이코쿠 33 관음 성지'의 27 번째 성지의 방문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관음보살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이 순례는 전체 거리가 1,000 킬로미터에 이르고 긴키 지방 7 개 현에 걸쳐져 있으며, 현재도 많은 순례자가 찾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33 성지를 모두 참배하여 모든 성지의 고슈인을 모은 사람은 사후에 극락정도에 갈 수 있는 공덕을 쌓았다고 간주됩니다.